직원모임서 '혁신사례 발표' 눈에 띄네

– 우수 아이디어·제안 발굴…' 이면지 활용 프로그램' 첫 발표

6월 1일 충남도청(도지사 안희정) 월례 직원모임에서는 이색 발표회가 열렸다. 도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우수 아이디어 및 제안을 찾아 매월 직원모임에서 발표하는, '혁신사례 발표'가 처음으로 진행된 것.

이날 발표는 도 혁신관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전준호(52) 사무관이 나섰다.

자신이 수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한 '이면지 활용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선보였다. 전 사무관의 이면지 활용 프로그램은 프린터 내 깨끗한 복사용지와 이면지를 필요에 따라 손쉽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컴퓨터에서 용지함 선택을 위해 필요하던 기존 다섯 단계 이상의 절차를 단 한 단계로 줄인 것이다.

예를 들어 프린터 내 두 개의 용지함에 깨끗한 복사용지와 이면지를 구분해 넣은 다음, 이면지를 이용한 인쇄를 할 경우, 그동안엔 컴퓨터에서 5번 이상 클릭하여 인쇄 설정 자체를 변경해야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인쇄 버튼 클릭과 동시에 이면지 인쇄 버튼이 나타나 단한번의 클릭으로도 이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정부 등의 실용화 가능성도 인정받았다.

지난 2005년 한국기술표준원으로부터 '훌륭한 제안' 평가를 받은데 이어 2006년 특허 획득, 같은 해 공무원 중앙 제안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또 지난 2008년부터 미국 특허를 출원 중이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에도 계속적으로 협조하는 등 기술 적용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전 사무관은 "사무실에서 모아뒀다 그냥 버리는 이면지가 아깝다는 생각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며 "프로그램이 국내 컴퓨터에 본격 적용될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혁신관리담당관실'을 새롭게 조직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계약서를 작성하는 '직무성과평가제'를 도입, 업무의 목표와 책임성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혁신사례로 발굴된 사업이나 제안에 대해 시상 및 지원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 내포신도시 성공이다!

– 충남도 전직원 내포 신도시에서 성공다짐 대회

세종시 원안 사수와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이어 내포신도시 성공여부가 충남도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대대적인 분위기 형성에 나서 주목된다.

충남도는 5월 28일(토) 내포신도시에서 전 공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성공기원 한마음다짐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한마음다짐대회에는 1500여명의 도 소속 공직자가 참여해 전 직원이 다 모이는 행사는 지난 2007년 이후 4년만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내포신도시가 한눈에 조망되는 '용봉산' 등산에 이어 도청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도청(내포)신도시성공다짐결의, 실국별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민원 처리와 농번기 등을 고려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토요일에 대회를 개최했다."며 "이번 행사는 내포신도시 성공을 위한 공직 내부 분위기 형성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충남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기획됐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5월 31일 안 지사 주재로 도 실국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기관·단체 이전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토의하는 등 이전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대한민국 기업 1번지 "충남입니다"

– 서울에서 전국 기업 CEO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충남도는 5월 2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초청, 충남형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화와 웅진, 보령제약 등 유망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설명회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환영사와 유병기 도의회 의장의 축사, 기업유치 시책 설명, 성공사례 발표, 시·군별 투자상담 등이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도는 16개 시·군의 특성화 전략산업단지 인프라, 사통팔달의 도로망과 항만, 211만명의 소비시장 및 18만명의 숙련된 인적자원 등 기업 입지에 유리한 충남의 환경을 소

개했다.

또 서북권 디스플레이(천안)와 자동차(아산, 서산), 철강(당진), 석유화학(서산) 등 충남의 4대 핵심 산업과 생태계 여건,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 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륙권 내포신도시(홍성, 예산, 청양)와 세종시(공주, 계룡, 연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잇는 IT, BT, 농축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과 서해안권(태안, 보령, 서천) 해양체험 · 관광산업과 연계한 해양 레저산업 육성, 서남부권(금산, 논산, 부여) 첨단 생명산업 산업단지 육성 현황 등 기업 맞춤형 인프라를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경기도 화성에서 충남 천안으로 기업을 이전한 신화인터택 김동욱 상무가 기업 이전 성공사례를 발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은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투자유치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민선5기 출범 이후에는 583개 기업, 2조5천억원을 유치해 1만7천명의 고용효과를 거뒀다"며 "이는 충남도가 저렴한 땅과 수도권 인접성, 풍부한 전문 인적자원, 맞춤형 기업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셋째아 무상보육' 7월 전면시행

– 다자녀 가정 보육료 절감 '저출산 시대' 대비

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등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모 소득 하위 70% 가정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도는 셋째아 이상의 아동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모두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셋째아 이상 아동은 ▲0세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세 19만7천원 ▲4세 이상 17만7천원을 매달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는 전액 도와 시 · 군이, 유아학비는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한다. 도내 셋째아 이상 아동은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보육료 35억 5천만원, 유아학비 10억 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에 따라 도교

육청과 협의, 공동추진이 성사되게 됐다.

안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만5세아 무상보육'을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을 실시하게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은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가 담긴 정책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 3개 시도연구원,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 세미나" 공동 개최

충남발전연구원 등 충청권 3개 시·도 연구원은 6월 13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충청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수도권 규제의 핵심 정책인 공장 총량제와 대기업 입지규제 시책이 유명무실화 된 상황속에 충청권의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충남발전연구원 개원 16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기도 한 이번 세미나에는 박진도 충남발전연구원장 등 3개 시·도 연구원장,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 유환준 충남도의회 부의장, 그리고 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 연구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충발연 박진도 원장은 개회사에서 "수도권 규

제 정책은 단순히 기업을 지방에 이전하거나 유치하기 위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에 따른 심각한 집적의 불경제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저하와 지역경제의 피폐, 그리고 수도권의 각종 주택·교통·교육문제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언급하면서 "외부 대기업을 지역발전에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 지역의 주체 역량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용웅 전.충남발전연구원장의 좌장으로 성신여대 권용우 교수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국토균형발전", 충발연 이관률 박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격차의 대응전략", 세종대 변창흠 교수의 "MB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충청권의 대응과제" 등의 주제발표에 이어 중부대 강현수 교수, 대전발전연구원 김홍태 도시기반연구실장, 이상선 분권균형발전전국회의 공동대표, 대구경북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 한남대 정순오 교수, 충북발전연구원 채성주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충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